

투데이 칼럼

대화는 인정하고 공감하라

대화는 생활의 필수이다. 대화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첫 걸음인데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를 하는 것 또는 그 이야기 자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대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없지만 생존, 관철, 욕망의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스피치의 영역에서 대화기법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률스님은 대화의 기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라.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남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나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감을 한 후에야 비로써 설득이든 협상이든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다. 협상의 방법도 종류가 많은데 서

로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따로 떨어지든지 방법이 많지만, 일단 결론을 내놓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다.

대화에서 이기는 방법에만 치중한 대화는 안 된다. 무술에 이런 격언이 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에 불과할 뿐이다.' 대화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없는 대화의 기술은 어쩌면 말의 폭력에야 비로써 설득이든 협상이든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다.



김양욱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를 하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공감을 자라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중요한데 사람분석, 상황분석을 잘해서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는 말로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남성은 인정화법, 여성에게는 심정을 알아주는 말을 한다면 쉽게 공감한다. 세상을 살면서 대화방법을 터득하여 긍정의 대화로 가슴에 상처주는 대화를 삼가 할 때 내 편이 많아지고, 호감 받는 사람이 되어 인격자로 대접받을 것이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대로 마구잡이로 해서는 큰 곤욕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혀, 이를 통해 말을 걸어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로는 천량 빛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말의 능력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대화란 내 인생의 최고의 도구인 사실이다. 우리 인간은 생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역시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욕망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서 대화의 중요성이 두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적하는 방법과, 대외적으로 내 욕망을 투영하는 방법이 있다. 대화의 3원칙인 권위, 감정, 논리를 통해서 설득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끝없이 대화의 기법을 연마할 때 욕망을 성취하고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장수하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대화력을 높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대화목적인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 준경망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

사설

외국인 근로자 파견 제도

외국인 근로자 파견 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주에 도입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보내 파견 근로자로 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농번기 무주군 관내 5천 4백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일손은 3만여 명에 달하지만 이를 충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규모가 작은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없었다.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길게는 다섯 달 동안 국내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 기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할 것인 아니다. 그러나 보니 계절 근로자는 체류 기간 내내 고용해주는 대규모 농가 차지가 되기에 실망이다. 특히 농업 부문에는 파견 근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보름이든 한 달이든 비교적 짧은 기간 인력을 쓰고 싶

은 농가는 농협에 신청해 일손을 구할 수 있다. 필요할 때 하루 이틀, 혹은 이삼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여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금은 농협에서 월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과 다를 없다. 일단 임금은 농협이 근로자들한테 먼저 지급한다. 그리고 후에 농가들한테 받아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게 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50명이 올 7월 하순 무주에 도착해 12월 초까지 5개월 150일간 무주군 관내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농촌 인력난 해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통해 140일간의 누계로 7천여 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근로자들 속속으로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농외소득 창출의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어느 의원의 재판 연기 거절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어느 의원의 변호인단이 잇따라 사임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가 하면 해당 의원이 재판연기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 전락으로 보고 경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기소된 뒤 서울의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어서 전주의 한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해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사임한 건 공판 준비 기일인 지난 5월 20일 무렵이다. 이어 첫 공판을 앞두고 또 다른 변호인이 사임했다. 불과 40여일 만에 변호인이 두 차례나 사임하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경우는 대개 의뢰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자의적으로 사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교롭

게도 현 재판부는 의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횡령과 배임 전도 같은 재판부로부터 중형 선고가 우려되자 의원 측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최근 첫 공판에서 의원이 3주의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또 의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자,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 재판부는 내년 2월 말 법원 인사 이전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24일까지 16회에 이르는 재판 기일을 미리 잡아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원 측은 재판 연기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이 재판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임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은 최선의 변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사회적 거리 두고 기도하는 인니 이슬람교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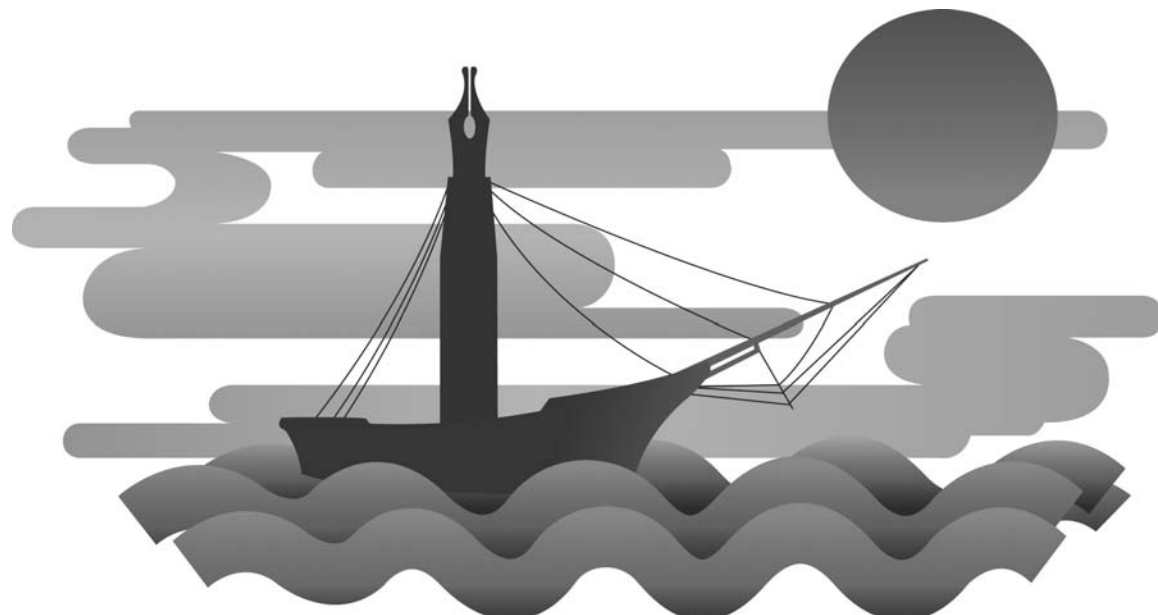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의 한 사원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드 알-이드(희생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라크시장 폭발, 피해 상황 살피는 남성



19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교외 시드르시티의 시장에서 폭탄이 터져 상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피해 상황과 가파를 살피고 있다. 이라크 내무부 관계자는 바그다드 동부 우헤일랏 시장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 28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